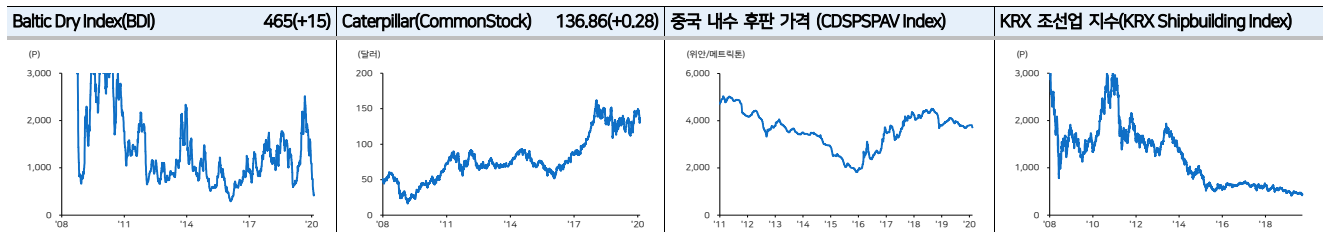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증가 (원)	1D (%)	1M (%)	3M (%)	YTD (%)	PER(x)		PBR(x)		ROE (%)	
								19	20E	19	20E	19	20E
현대중공업지주	4,796.4	19.7	294,500	0.0	-6.4	-7.3	-12.9	13.3	9.5	0.6	0.6	4.6	6.1
한국조선해양	8,174.3	17.8	115,500	0.0	-10.1	-0.4	-8.7	38.1	31.4	0.7	0.7	1.9	2.1
삼성중공업	4,145.4	18.4	6,580	-1.2	-10.5	-2.9	-9.5	-3.9	331.1	0.7	0.7	-16.0	0.3
대우조선해양	2,669.4	12.3	24,900	-0.8	-5.7	-6.2	-10.6	39.8	36.0	0.7	0.7	1.7	1.7
현대미포조선	1,619.7	12.4	40,550	-0.9	-16.0	-0.7	-11.9	18.8	17.1	0.7	0.7	3.7	4.0
한진중공업	396.0	20.8	4,755	-0.1	0.6	0.5	-4.6	N/A	N/A	N/A	N/A	N/A	N/A
한국항공우주산업	2,914.5	19.2	29,900	-1.5	-8.8	-21.1	-12.2	13.3	16.4	2.4	2.2	19.2	14.2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688.6	22.3	32,750	0.5	-6.3	-14.9	-6.6	13.6	13.1	0.7	0.7	4.9	5.1
LG넥스원	603.9	4.6	27,450	-0.4	-6.2	-17.5	-13.1	N/A	N/A	N/A	N/A	N/A	N/A
현대로템	1,304.8	4.0	15,350	-0.6	-5.2	-4.4	-1.6	-7.0	258.4	1.5	1.5	-19.2	0.4
현대엘리베이터	1,615.6	22.1	59,400	-1.5	-14.7	-20.7	-13.0	32.6	21.1	1.7	1.6	5.0	7.7
두산중공업	1,379.0	7.0	5,600	-3.4	0.5	2.4	-2.1	-15.7	10.7	0.4	0.3	-3.4	4.7
두산밥캣	3,032.5	26.2	30,250	0.5	-6.3	-5.5	-11.9	10.1	9.4	0.8	0.7	7.8	8.0
두산인프라코어	995.0	14.3	4,780	-2.8	-9.1	-13.7	-13.9	3.7	3.7	0.4	0.4	12.6	10.8
현대건설기계	461.0	10.0	23,400	-2.5	-24.5	-19.0	-21.7	6.8	5.8	0.4	0.4	5.1	6.5
현대일렉트릭	364.1	5.6	10,100	-0.5	-15.1	18.5	-12.6	-2.1	195.2	0.4	0.5	-14.2	-0.6
하이룩코리아	211.0	46.6	15,500	0.3	-10.4	-9.4	-19.3	N/A	N/A	N/A	N/A	4.5	4.8
성광벤드	255.4	20.0	8,930	-0.8	-12.9	-8.6	-13.7	34.4	21.1	0.6	0.6	2.4	2.9
태광	246.2	15.1	9,290	-1.3	-13.2	-3.8	-8.9	N/A	N/A	N/A	N/A	N/A	N/A
동성화인텍	283.3	5.2	10,500	-0.5	-3.2	8.8	-0.5	17.7	8.0	3.0	2.2	19.7	32.9
한국가본	393.0	13.1	8,940	0.4	9.2	26.3	14.2	32.4	11.8	1.3	1.2	4.3	10.0
태웅	146.9	4.8	7,340	-0.4	-9.0	-15.1	-17.4	N/A	N/A	N/A	N/A	N/A	N/A
HSD엔진	135.1	2.6	4,100	0.6	-9.9	-13.4	-8.3	-5.5	28.0	0.6	0.6	-11.1	2.2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리서치센터

주요 지표 및 차트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Hapag-Lloyd's Rolf Habben Jansen sets sights on mega-ships
 독일의 컨테이너선사 Hapag-Lloyd는 메가 컨테이너선 6척의 발주계획을 표명했다고 보도됨. 15년 이후 첫 발주 계획이며 아시아-북유럽 항로 1개 Loop에 필요한 메가 컨선이 최소 12척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힘. LNG-Ready선을 개조 공사하는 방안 및 LNG추진선 발주도 검토 중이라고 밝힘. (TradeWinds)

한국 'LNG선 썩팻' 맞보기...지나해 전례물량 30% 이미 확보
 최근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프랑스 에너지기업 Total과 17만CBM급 LNG선 각 8척씩, 총 16척에 대한 건조의향서(LOI) 체결 건은 본 계약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라고 보도됨. 카타르가 엑손모빌과 미국 텍사스에서 추진하는 LNG 개발 프로젝트 '골든패스'(Golden Pass)에서도 30척 가량의 발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됨. (파니투데이)

LNG선 스팟유입 하락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가 시장을 엄습하면서 중국의 LNG수요가 폭락함에 따라 운임은 역사적 최저점을 기록했다고 보도됨. 브로커들에 따르면 운항 지역이나 선박 사이즈에 관계없이 모든 LNG선 운임이 일제히 하락했으며 이로 인해 중국으로 향하던 선박들이 목적지를 바꾸거나 일부 화물을 선상에 저장해 두는 방안을 강구하는 중. (선박뉴스)

IMO's newbuilding rules will lengthen yard delays in China
 다수의 중국 조선소들이 올해 7월부터 완전히 시행될 IMO의 목표기준(GBS, Goal-based Standards)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됨. 중국조선업체가 보유한 수주잔고의 상당부분이 GBS를 따르지 않은 채 디자인되었고 따라서 납기도 올해 7월 전으로 계획했으나, 우한 폐렴 사태로 상당 수 지연될 가능성이 보도됨. (TradeWinds)

VLCC가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가장 커
 브로커들에 따르면 VLCC가 유조선 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선형으로 확인됨. 전 세계적으로 VLCC의 중국 의존도가 42%에 달하는 만큼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도됨. 다만 수에즈막스 탱커와 아프리카막스 탱커는 그나마 복원력이 VLCC보다 나은 편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삼성중공업, 부유식 LNG생산설비 말레이시아로 출항
 삼성중공업이 제작한 부유식 LNG생산설비(FNLG)가 말레이시아로 출항했다고 보도됨. 삼성중공업이 14년에 말레이시아 국영 에너지기업 페트로나스로부터 16억달러에 수수했으며 설계, 구매, 생산, 시운전까지 전 과정을 총괄했음. (선박뉴스)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